

## 붙임5

## 복지포털사이트 '복지로' 확대 개편

### □ 개요

- (배경) 복지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재정누수 사례 신고 과정에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 개설
- (사업내용) 복지정보 안내·신청 뿐 아니라, 도움신청·부정수급 사례 신고도 가능한 원스톱(one-stop) 포털로 확대 개편
  - \* (기존) 21개 부처 복지정보안내·신청
  - (개편) 도움신청·부정신고 코너 신설,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기능 도입
  - \* 정부 포털 최초로 부정수급 익명신고 기능 도입, 참여 활성화 유도

### □ 정책성과

- 국민참여포털 운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누수 방지
- 개편 후 일 평균 방문수는 13,654건('15.10월)으로 개편 전('14년 12월 10,538건)에 비해 약 30% 증가

- ❖ (도움신청) '15. 1월 일평균 접수 3.1건 → 10월 5.7건으로 신청 건수 증가, 신청 사연(1,839건) 중 560건(30%)에 대해 긴급지원·민간 후원 등 연계
- ❖ (부정수급 신고) '15.1월 일평균 접수 1.2건 → 10월 2.7건으로 신고 증가, 접수된 609건 중 503건 조사 완료. 이 중 69건 부정확인(14%)
  - \* 익명신고는 '14.12월(시범오픈) 일평균 접수 0.4건 → 10월 1.8건으로 신고 활성화에 기여

### □ 지자체 협조사항

- 관내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현수막, 포스터, 리플렛, 배너광고 등은·오프라인 홍보 협조
- 집중 발굴·지원 기간 동안 '복지로'를 통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적극 도움 지원

## □ 주요 신청사례 현황

### ○ 도움신청 사례

#### ◆ (사례 1) 이웃(가족)이 도움 신청

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00씨(62세)는 1년 전까지 유지되던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음.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, 병원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음. 박씨의 매형이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(이웃신청)에 이러한 사연을 올림. ('14.12월, 부산)

⇒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설득하여 긴급 입원절차를 진행하고, 퇴원 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급여지원(생계주거급여),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상향. 지속적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사례관리 중

#### ◆ (사례 2) 본인이 도움 신청

어머니의 의료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였으나, 어머니 사망 후 재취업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. 자활센터에 다니고 있으나, 주거공간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'도움신청' 코너에 올림. ('15.10월, 충남)

⇒ 우울증으로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청인에게 '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'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, 주거급여 신청 안내. 지자체 '희망복지지원단' 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하였으며, 우체국 공익재단 주거비 지원신청도 의뢰할 예정임

### ○ 부정수급 신고 사례

#### ◆ 부정수급 익명신고 사례

신고인은 부정수급 피신고인과 직장동료로서, 동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,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'복지로 익명신고' 코너에 글을 올림 ('14.11월, 경남)

⇒ 신고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의 통장거래 확인 결과, 신고 소득을 초과하는 추가소득(500여만원)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('15.7월)